

# 李文烈의 〈사람의 아들〉 研究

박재성\*

## 目 次

- I. 緒 論
- II. 〈사람의 아들〉의 構造 美學
  - 1. 敘事構造
  - 2. 作中人物의 欲望構造
  - 3. 構造 美學
- III. 挫折된 欲望과 그 意味
  - 1. 요섭의 경우
  - 2. 동팔의 경우
- IV. 作家와 讀者와의 Communication
- V. 結 論

## I. 緒 論

오랫동안 사람들이 神의 얘기를 하는 것을 듣지 못했다. 혹 하더라도 그들은 쑥스러운 듯 수근거리 말했고, 더러는 자기들의 隱語로만 얘기했다. 그래서 감히

\* 4학년

내가 말했다. 목소리는 떨리고 얼굴은 달아 오른다. 그러나 神은 우리의 영원한 主題 중의 하나이다.……

-「오늘의 作家賞」受賞所感 中

사람들은 애써 神을 찾는다. 아늑한 家庭의 식탁이나 각박한 일터에서, 혹은 엄숙한 集會에서도 사람들은 그들의 신을 日常으로 찾는다. 이러한 사실은 人間의 有限성과 關聯된다. 人間들의 思考와 行動은 그 나름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초월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하게 되고, 이 노력의 하나가 神찾기인 것이다. 신을 인간 위에 設定해 놓음으로써 인간은 그들의 限界를 신에 의탁하여 克服할 수 있게 된다.

人間의 限界性은 또한, 인간으로 하여금 신을 否定하게 한다. 20C의 實存哲學과 科學的 思考力으로 現實과 그 실존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인간의 힘으로 世界를 解釋할 수 있다는 一種의 自自信感으로, 그들은 沈默의 虛像인 神을 否定한다. 그러나 神은 根源的인 무게로 인간들의 마음 한 곳에 앙금처럼 남아 있다. 哲學이나 科學으로도 解決할 수 없는 神, 現代에 와서까지 인간 存在自体를 規定지어 버리는 神에 대한 畏敬, 이런 역설적인 현상이 인간의 유한성을 말해 주는 것이다. 아직도 ‘神이란 이런 것이다’라는 확연한 概念 設定조차 해내지 못하는, 그리하여 神에 대한 疑問, 또는 否定과 敬畏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 앞에서 人間은 지나긴 迷惑의 시간 속을 걷고 있다.

이러한 狀況 하에서 李文烈의 〈사람의 아들〉은, 神의 問題와 人間의 限界狀況을 文學으로 受容하고 있다. 신에 대한 否定과 敬畏를 성서의 말씀과 주인공들의 現世性을 對立시켜,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問題視 되어 왔던 ‘神’의 문제를 들고 나오으로써, 讀者들에게 体系的인 물음의 可能性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神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基本的 動機로 삼고, 이에 대한 同軌의 고민을 하고 있는 作品에 대한 研究이다. 神의 本質과 存在 與否, 그리고 人間과의 關係는 어떠한지를 한 文學 作品을 통해 살펴 봄으로써, 文學에서의 神의 價值 定立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神과 人間 兩者에 물음을 던질 수 밖에 없는 人間의

限界狀況의 本質을 따져 보는데 하나의 디딤돌이 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사람의 아들〉<sup>1)</sup>에 대한 종래의 연구 작업은 적은 편이다. 宋尚一의 〈不在하는 神과 小說〉, 이보영의 〈기독교 문학의 가능성〉, 광광수의 〈사랑과 背理-基督教的 悲劇性〉, 이남호의 〈神의 은총과 人間의 正義〉, 이동하의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비판〉, 金柱演의 〈文學的 感動과 神性〉, 그리고 김인숙의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에 대한 연구〉가 그것이다.

이 들 研究는 나름의 形式과 무게를 지니면서 작품의 意味 解説에 力點을 두고 있다. 작품의 構成上의 難點을 지적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sup>2)</sup> 현세적 신에 대한 摸索은, 解放神學·20C 解釋學에서의 신학 해석의 업적을 無視한 시대착오적 위험에 빠질 염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sup>3)</sup> 그리고 〈文學的 感動과 神性〉에서는, 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작품에서 문학적 감동은 어떠한 것이며 神性을 지닌 예수에 대한 아하스 페르츠(민요섭)의 회귀에 초점을 맞추어 神性의 천착을 시도한 연구로서 그 의미가 있다.<sup>4)</sup>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에 대한 연구〉는 앞의 연구들과는 달리, 작품의 思想性과 藝術性을 体系的으로 考察하고 있다. 사상면에서는 郭光秀의 〈사랑과 背理-基督教的 悲劇性〉<sup>5)</sup>이라는 연구를 批判하고 난 후, 이 작품은 '지상의 구원을 이방의 새로운 믿음과 그 신에게 기대했던 바, 이에 기인한 또 하나의 배신감을 표출하는 데 성공한 작품이라고 보고 있다. 그리고 예술적 성과면에서는 탐정소설적 패턴과 고전적 품위의 문체를 성

---

1) 1987년 개보판인 장편을 그 原典으로 한다.

2) 宋尚一, 〈不在하는 神과 小說〉, 《文學과 知性》, 1979. 겨울

3) 이남호, 〈神의 은총과 人間의 正義〉, 《李文烈論》, 三人行, 1991

李東夏, 〈한국 현대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비판〉, 《전농어문연구》 제2집, 서울 시립대 국문과, 1989

4) 金柱演, 〈文學的 感動과 神性〉, 《文學을 넘어서》, 文學과 知性社, 1987

5) 郭光秀, 〈사랑과 背理-基督教的 悲劇性〉, 《사람의 아들》, 민음사, 1981

공적으로 活用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sup>6)</sup>

위의 연구들을 綜合하고 批判을 시도해 본 후 필자는, 이 작품을 연구함에 있어 단지 解說的 次元에 머무르지 않고, 작품의 形式과 構造를 유심히 살피어 類子와 속그림의 연결고리를 읽어내고, 특히 作中人物들이 갖는 欲望의 구조는 어떠한가, 그 욕망의 구현인 神과 좌절된 욕망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밝혀보려 한다. 따라서 敘事構造와 르네 지라르의 욕망의 삼각형 理論을 크게 참고하게 될 것이며, 作家와 讀者와의 意思疏通이라는 立場에서 이 兩者가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주고 받게 되는가를 밝혀보게 될 것이다.

## II. <사람의 아들>의 構造 美學

이 작품은 민요섭이라는 한 기독교의 신학도가 실제 사회와는 유리된 神에 대해 徹底히 회의하고, 새로운 神을 찾아 방황하다가 그 神이 그에게 전혀 새로운 神性을 제시해 주지 않자, 고뇌 끝에 원래의 신으로 회귀한 후 결국에는 그의 추종자에 의해 살해된다는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줄거리가 作品의 全体意味를 形成하고 있지는 않다. 그것은 이 소설이 '類子小說 Framework-story · Rahmenerählung'이라는 점, 따라서 '내부이야기 Birrenerählung' 또한 이 소설의 상당한 部分을 이루면서 主題와 관련을 맺고 있고, 작중인물들의 욕망구조가 설명되어야만 좌절에 따르는 작품의 전체의미가 드러난다는 점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項에서는 작품의 의미를 把握하기 위한 그 基礎作業으로서, 이 작품이 지니는 敘事構造와 작중인물들의 욕망구조에 대해 살펴 보고, 그 美學을 따져 보려는 것이다.

### 1. 敘事構造

서사구조의 考察에는 두 가지 시각이 있을 수 있다. 하나는 평면적 시각으로,

---

6) 김인숙,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에 대한 연구>, 《울산대 연구논문집》, 제20권, 1989

단순히 바깥으로 드러난 계층적 조직을 고찰해 보는 것이다. 또 하나는 입체적 시각으로 텍스트를 표면구조와 심층구조로 분류하여 그 정돈상태를 고찰해 보는 것이다.<sup>7)</sup>

〈사람의 아들〉은 아하스 페르츠의 행적을 내부이야기로 하고, 민요섭과 조동팔이 엮어 나간 사건을 남경사가 쫓는 얘기를 바깥이야기 Rahmen로 구성한 액자소설이다. 액자형식은 작품의 서사구조 分析에 있어, 액자와 속그림 兩者가 행동<sup>8)</sup>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면적 시각으로 接近하는 것이 작품의 구조적 의미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리라 본다.

이 作品 全体의 構造를 커다란 행동 단위들로 나누어 배열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sup>9)</sup>

1. 남경사가 죽은 민요섭의 행적을 추적한다.

-영생기도원의 황전도사를 만남→신학대학의 배교수를 만남→8년전 주소를 찾아감(일기장과 원고지 묶음 입수)→교회 집사와 평신도를 만남→문장로를 만남→문장로 부인을 만남(요섭의 불륜 확인)→민요섭의 소설을 읽음………  
①아하스 페르츠의 탄생과 유년을 거쳐 성년의 문턱에 다다르면서 야훼의 말씀에 회의한다- 유년기 테도스와의 만남(인간의不幸 목격)→18세에 아삽의 아내 사라와의 만남(불륜과 인간성의 일면 체험)→육신을 가진 인간의 고통과 말씀만이 전부인 야훼의 독선 비난→회의와 함께 故郷을 떠남 ……

---

7) 金天惠, 《소설 구조의 이론》, 文學과 知性社, 1990, PP162~163

8) 구조주의에 의하면, 소설은 '문장'→'단위 사건'→'행동'→'전체 소설'의 순으로 계층적 조직이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 여기에서의 '행동'을 말하는 것이다. 같은 책, P164 참조

9) 이 연구에서의 구조배열은 장편소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해서 하나의 의미단락으로 독립시켰다. 상당히 자의적인 배열임을 밝혀 둔다.

2. 남경사는 민요섭의 소설을 그의 체험의 형상화라 확신하고 계속 행적을 추적한다-향도인 B시에서 조동팔의 아버지를 만남(동팔의 존재 처음 인식)→신영식을 만남(요섭과 동팔의 교주, 신도의 관계 확인)→T시로 떠남→민요섭의 소설 ……… ② 고향을 떠난 아하스 페르츠는 새로운 神을 찾아 방황한다-隱修士를 만남→이집트로 감(이시스교…신성의 俗化, 믿기 위한 미신)→가나안 지방과 페니키아 해변 쪽을 해뎀→북시리아로 감(무와탈리슈의 神 …신성이 없으며 자비와 사랑이 缺如됨)→바벨론으로 감(마르두크 神 … 고향의 신과 흡사한 神, 대리왕으로 희생될 뻔 하다가 히메루스의 양딸의 도움으로 탈출)

3. 남경사는 아하스 페르츠의 방황 부분에서 읽기를 멈추고 민요섭과 조동팔의 행적을 계속 추적한다-T시에서 요섭과 동팔의 존재 확인(공사판, 변두리 빈민가)→향도인 I시로 감(요섭과 동팔의 자선, 선교)→요섭과 동팔의 신에 금금증을 가짐→요섭의 원고 ………

③ 바벨론을 떠난 아하스 페르츠는 여러 곳을 방황하다 고향행을 결심한다-페르샤로 감(조로아스터교…선·악의 二元論, 배화사상, 보다 강력한 일원론의 토대 구축을 위한 과정으로 봄)→인도로 감(브라마교…범신론, 불교…위장된 무신론)→로마 방문(애지라는 神…철학)→장님의 추상론을 들음(각성)→실체로서의 神의 부름을 기다리기 위해 고향행을 결심함…

4. 수사의 공전과 함께 사건은 미제로 처리되고 후속 수사를 맡은 남경사는 계속 그들의 행방을 추적한다- D시로 감(하숙집…요섭의 칩거 생활, 소집단이 없어짐, 김씨 존재 확인)→이주임의 빈정거림에 자극 받음→요섭원고 ………④ 고향으로 돌아온 아하스 페르츠는 위대한 영과 예수를 접하게 되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의 예언인 재림을 기다리며 이 세상을 떠돈다- 고향의 쿠아란타리아 광야(위대한 영의 가르침을 들음, 예수와의 첫 만남)→가르파나움(두 번째 만남)→산상의 수훈(세 번째 만남)→五餅二魚의 기적(네 번째 만남)→예루살렘 성전(다섯 번째 만남)→최후의 만찬 직후(여섯

번째 만남)→십자가를 진 예수(일곱 번째 만남)→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됨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에게 재림을 기다릴 것을 토로함→기다림의 길에 나  
 섬……

5. 어떤 종류의 열정으로 그 사건에 몰두하던 남경사는 조동팔의 행적을 추  
 적한 끝에 조동팔을 찾아 낸다—사창가에서 윤향순을 만남(요섭과 동팔의  
 존재 확인…동팔은 가명에 주민등록증까지 소지하고 있음)→K읍에 감(김순  
 자여인에게서 요섭과 동팔의 갈등 확인, 쿠아란타리아를 입수)→쿠아란타리  
 아를 살피→김동욱에 관한 조회를 의뢰→김형사의 기억으로 김동욱의 출소  
 확인→K읍으로 감(동팔과의 대면…요섭을 살해했음을 확인)→동팔의 자살.

위의 배열에서 작은 행동단위인 ①~④가 내부 이야기이며, 1~5가 바깥이  
 이야기에 해당된다. 민요섭과 아하스 페르츠의 행적을 부분으로 나누어 평행선을  
 달리게 하고 있다. 이러한 평행선을 민요섭의 행적에 說得力을 부여하기 위한 小  
 說的 裝置이다. 아하스 페르츠는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예수와 동시대를 산 제  
 화공이었다고 한다. 십자가를 진 예수가 골고다로 향하는 도중 지쳐 쓰러졌던 곳이  
 그의 집 앞이었는데, 잠시 쉬어가게 해 달라는 부탁을 거절함으로써 저주를 받아  
 예수가 재림할 때까지 죽지 못하고 이 세상을 영원히 떠돌아 다녀야 하는 방랑  
 자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인물이다.<sup>10)</sup> 이러한 인물을 聖書의 여러 部分에 登場시켜  
 예수의 언행과 강력히 대비시키고 있는 內容이 바로 내부이야기가 되고, 이 내부  
 이야기에 따라 민요섭의 행적은 그 설득력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매우 무거운 主題를 다루고 있는 이 소설에서 바깥이야기의 人物들을 통해 장  
 황하게 神의·얘기를 들려 준다면, 소설적 흥미는 매우 감소될 것이다. 민요섭과  
 조동팔의 言行을 조금씩만 내비추면서 정작 민요섭이 갖고 있는 視觀을 액자의  
 속그림에다 위치시켜 보여 준다는 점이 이 소설이 잘 된 소설이 되기 위해 敍事  
 構造인 것이다.

10) 이문열, 《사색》 살림, 1991, P 212

그리고 이 소설의 서사구조에 있어 額子와 속그림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배열되고 있다. 이를 교차실 배열 alternance<sup>11)</sup>이라고 하는데, 1과 ①에서의 민요섭의 현실에 대한 인식과 문장로 부인과의 불륜/아하스 페르츠의 人間의 不幸을 목격함과 사과의 불륜에서 처럼 적당량씩 끊어서 안과 밖의 내용을 들려 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구조 배열은 2와 ②, 3과 ③, 4와 ④, 그리고 5에서도 確認되는 것으로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傳達시키기 위한 構造上的 배려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송상일의 解釋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는 이 작품에 대해 ‘두 관점의 교차가 변증법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일방적인 <소개> 정도로 그치고 있음이 이 作品의 가장 큰 취약점’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up>12)</sup> 이 해석은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 남경사라는 人物과 아하스 페르츠라는 人物의 대비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남경사는 作中の 主人公이 아니다. 단지 민요섭의 죽음에 대해 사건 해결의 차원에서 민요섭과 조동팔을 쫓아 그 行跡을 밝혀 주는 人物이지, 作品의 主題 具現에 참여하는 인물은 아니다. 이 작품은 <쿠아란타리아書>라는 연결고리로 액자와 속그림이 같이 연결돼 있는 構造로 되어 있으면서 민요섭과 아하스 페르츠, 조동팔이라는 主人公들의 反基督教的 行적을 小說로 정제해 놓은 것이다. 따라서 송상일의 해석은 批判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作中人物의 欲望構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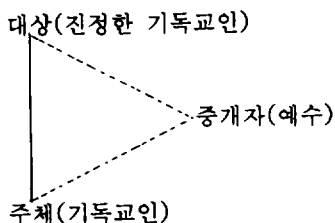
소설의 내면적인 구조와 사회의 내면적인 구조적 동질성을 파악하는 데 가장 큰 근거를 제공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르네 지라르이다. 그에 의하면, 소설 속의 주인공들은 자기 자신으로 만족하지 못하여서 자신을 초월하고자 하는데 이 때 초월은 자신이 욕망을 하게 되는 대상을 소유함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11) 金華榮편역, 《소설이란 무엇인가》, 文學思想社, 1986, P 105

12) 宋尚一, 같은 책, P 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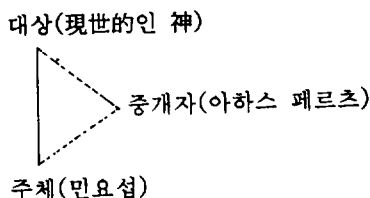


그 인물들은 욕망의 대상을 소유하는 데 있어 중개자에 의해 간접화 과정을 거친다. <sup>13)</sup> 가령 기독교에 있어, 기독교인들은 진정한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중개자인 예수를 모방함으로써 그의 욕망은 간접화 된다.



〈사람의 아들〉에서의 주인공인 민요섭과 아하스 페르츠, 조동팔은 基督敎의 世界觀을 拒否하고 現實에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神을 찾으려고 애쓴다. 이러한 노력을 欲望으로 把握하여 그 構造를 살피면, 人物을 통한 구조의 意味와 社會的 關聯性까지 說明이 可能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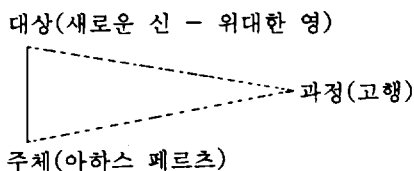
우선, 민요섭과 아하스 페르츠의 欲望構造는 서로 類似할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르게 나타난다. 민요섭은 日本의 實踐神學者이자 사회개혁가 노동운동가 복음전도사에 作家이기도 한 가가와 도요히꼬라는 인물에 경도되고 오피테스라는 고대의 異端을 崇拜하여, 人間의 現世에 닿아 있는 神을 찾는다. 그리고 그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그는, 그가 만들어 놓은 傳說 속의 아하스 페르츠를 중개자로 設定하여 그를 模倣하게 된다.



이 삼각의 도형속에서와 같이, 민요섭은 그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 전설 속의 인물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는 아하스 페르츠를 모방하기만 하면 現世의 人 神과 만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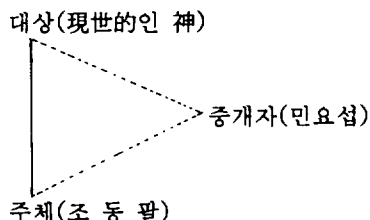
13) 金治洙, 편저, 《구조주의와 문학비평》, 弘盛社, 1985, P

반면에 아하스 페르츠는 민요섭의 行動에 당위성을 부여하지만, 그 자신의 욕망은 중개자를 통하지 않고 달성된다. 이것은 이 인물이 傳說 속의 人物이고, <위대한 靈>과 만나기 위해 苦行이 強調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다.



이처럼 요섭과 아하스 페르츠는 그 宗教的 理解의 類似性에도 불구하고, 요섭의 경우에는 자신이 設定한 아하스 페르츠라는 人物을 欲望의 중개자로 삼고, 아하스 페르츠는 중개자 없이 단지 苦行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神을 접하게 되는 욕망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앞의 서사구조에서 살펴 봤듯이, 민요섭은 아하스 페르츠에 관한 글을 그가 기독교로 회귀하기 전에 미리 完成해 놓았고(1), 그 소설 형식의 글을 뛰어 넘어 현실에서 그 교리를 실천하려 한다. 즉 1, 2, 3의 작은 행동 단락에서 민요섭은 조동팔과 함께 아하스 페르츠의 사상을 당시의 社會 안에서 實現시켜 나가고 있는 것이다. (小集團의 保護, 教育, 터전 마련, 宣敎)

민요섭의 基督教 解釋에 교화된 조동팔은 당연히 민과 같은 神을 갈구한다. 한 때 敎회를 다니면서 神學大學에 진학할 꿈을 가졌던 그는, 민요섭이라는 人物이 提示하는 새로운 신의 世界에 감복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요섭에게 바치게 된다. 민요섭은 그의 人生에 意味를 부여하고, 그의 行爲에 政當性을 確認시켜 주는 敎주인 셈이다.



그러나 동팔과 요섭 사이에는 미묘한 葛藤이 존재한다. 그것은 실천행위의 정당성 與否와 關聯되는데, 요섭은 아직 자신의 능력으로 苦痛과 不幸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려고 한다. 동팔도

이 점에서는 같지만, 노동자 김동욱의 죽음으로 그는 그들의 敎理를 人間社會의 정당성을 무시해 버려도 될 만큼의 강한 原理로 認識해 버리고 만다. 따라서 殺人까지 불사하면서 궁핍한 자들을 도우려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요섭은 拒否反應을 보인다. 그는 어디까지나 神의 秩序에 있는 자였기 때문이다. 그리곤 자기 否定에 이르러 基督教에 회귀하게 된다. 이에 대해 이남호는 다음과 같이 言及하고 있다.

민요섭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주변적 인물(marginal man)이 되어 버린다. 그는 기존의 정신 질서와 자신의 주체적 진실 사이의 경계선 위에서 사유하고 방황한다. 조동팔의 행동이 점점 사회 질서로부터 극단적으로 이탈되자 혼들리기 시작한다(중략) 그렇다면 조동팔은 왜 자기 부정에 이르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될 수 있다. 하나는 조동팔이 주변적 인물이 아니라 완전히 이탈된 인물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는 기존 질서로의 회귀가 불가능한 인물이다. (중략) 또 하나의 이유는, 조동팔이가 행동하는 인물이기 때문이다.<sup>14)</sup>

이처럼 조동팔은 社會에서 완전히 이탈되고, 민요섭의 敎理에 따라 行動하는 人物이기 때문에 만약 欲望의 仲介者인 요섭이 否定되면, 그는 아노미적 狀況에 빠져 버리고 민요섭이 基督教로 회귀하게 되자 그에게 있어서는 價値體系의 完全한 붕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自身과 自身の 神을 지키기 위해 민요섭을 살해하게 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作品의 主人公인 민요섭과 아하스 페르츠, 조동팔은 새로운 神-現世的 神-을 찾기를 갈망한다. 이러한 사실은 基督教의 價値體系가 現代에 와서 새로이 認識되고, 實存과 科學的 思考를 重視하는 현대인에게 기독교뿐만 아니라 神이라는 存在의 本質에 대해 疑問을 提起할 수밖에 없는 人間社會의 모습을 反映하고 있다.

---

14) 이남호, <神의 은총과 人間의 正義>, 《李文烈論》三人行, 1991P 213

### 3. 構造 美學

장편소설인 경우, 그 작품의 구조 分析은 매우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분석의 方法에 있어, 소설의 類型에 따라, 적절한 것을 택한다면 그리 어려운 문제도 아닌 것 같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장편을 놓고 필자는 그 敘事構造와 作中人物의 欲望構造를 통해 作品 內外的 의미망을 단순화 시켜 보았다. 이 제는 구조의 배열을 통해 作品의 美學을 따져 볼 차례이다.

우선 이 작품은 '神'이라는 무거운 問題를 들고 나왔다. 이 문제는 단편적으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거나 진지한 思考의 對象이 되긴 하지만, 하나의 小說 作品으로 써 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作業은 아니다. 作品化 하기 위해서는 主題의 무게만큼 形式과 構造의인 배열에도 많은 배려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살펴 봤듯이, 이 작품은 類子形式을 빌고 있다. 이러한 소설의 구조는 바깥이야기 行爲에 명징성을 부여하고, 내부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꾸며 줄 수 있다.<sup>15)</sup> 그러나 이 작품이 서사구조상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액자형식의 내·외가 서로 같은 비중으로 교차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교차는 자칫 지루해질 수도 있는 內容을 토막으로 끊어서 바깥이야기로 換氣시켜 주어 小說의 興味를 더 한다고 할 수 있다.

또 한 가지의 構造上의 特徵은 이 작품이 thriller pattern을 빌어 쓰고 있다는 것이다.<sup>16)</sup> 민의 被殺과 이에 대한 남경사의 執念어린 추적의 패턴이 그것인데 (1, 2, 3, 4, 5의 行動段落), 이는 신의 문제라는 무거운 주제를 가장 재미있게 해 주는 構造 美學<sup>17)</sup>이다. 또한 이 서사구조 自体로서, 神의 問題는 人間으로서 풀기

---

15) 내부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꾸며 준다는 것은, 독자가 접하는 직접적인 부분은 바깥 이야기이기 때문에 허구 속에 들어 있는 또 다른 이야기는 여과를 거쳐 사실의 환상을 심어 준다는 것이다.

16) 'thriller pattern'은 '탐정소설적 형식'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

17) 여기에서의 구조 미학은 형식과 내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구조'를 전제한다.

힘든 一種의 추리소설과 같은 것임을 示唆해 주기도 한다. 이에 대한 김인숙의 解説은 마뜩한 것이라 할 만하다.

이 형식을 빌리므로써 작가는 작품이 끝날 때까지, 주제가 불러 일으키는 부조리의 인식과 그 고뇌에 독자를 묶어둘 수 있고, 이로써 독자로 하여금 인간의 근원과 본질을 되돌아 보게 하려는 자신의 궁극적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탐정소설적 pattern은 결국 그것이 주인공의 마음의 미로를 헤쳐 나간다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고, 이런 맥락에서 그 추적은 물리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결국 인간의 Spiritual journey to "Know thyself"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sup>18)</sup>

민요섭과 조동팔의 現世的인 神에 대한 갈망은, 人間社會의 秩序 內에서 추구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탈된 手段과 方法으로도 正當하게 達成될 수 있는느냐가 문제의 核心이다. 언제나 주인공들의 欲望은 달성되지 않은 채로 남겨진다. 이는 그 過程의 제시와 함께 讀者들에게 문제를 해결할 여지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사람의 아들>에서 민요섭과 조동팔이 갖는 새로운 神에 대한 욕망은 결국 좌절되고 만다. 그 과정에서 社會秩序 內에서 신을 찾고 善을 實行하려는 민요섭과 現在의 秩序體系를 무너뜨리면서까지 '우리의 신은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붙이셨오. 우리끼리 용서할 수 있는 것은 그에게서도 용서되오'라는 論理도 正義를 實現하려는 조동팔 사이의 微妙한 葛藤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은 讀者들에게 그 選擇과 思考의 權限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설사 민요섭을 택한다 하더라도 그는 이미 회귀해 버린 좌절자다.

앞으로도 얘기가 되겠지만, 作品 속의 欲望構造는 讀者에게서 再認識될 수 밖에 없다. 민요섭의 욕망 추구와 그 좌절, 그리고 죽음, 조동팔의 죽음 등은 중개자이면서도 行動의 過程에 놀라워 하는 矛盾과 悲劇性을 독자가 把握하고, 독자 나름대로 神에 대한 새로운 갈망을 하게 하는 小說的 메세지가 強熱한 것이다.

---

18) 김인숙, 앞의 책, P 44

### III. 挫折된 欲望과 그 意味

아하스 페르츠뿐만 아니라 민요섭도 조동팔도 그들이 바라던 바-새로운 神, 現世的인 神-를 이루지 못했다. 아하스 페르츠는 예수 앞에서 재림을 기다릴 것을 약속했고, 민요섭은 교회로 돌아간 후 그의 추종자에게 미소띠며 살해 당했으며, 조동팔 역시 자신들의 神을 옹호하며 서서히 스러져 갔다. 그러나 그들의 欲望 挫折은 그 自體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욕망이 좌절된 후 보다 큰 여운을 讀者들에게 남기고 있다. 그 여운을 쫓아 보려는 작업이 이 항에서 해야 할 일이다.

#### 1. 요섭의 경우

민요섭의 精神的 土壤은 基督教이다. 그는 어려서 선교사 알렌에게 입양된다. 중·고등학교를 일류로 다녔고, 명문대학교에서 2년 정도 철학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서 神學校로 삶의 方向을 돌리게 된다. 신학교에 入學해서도 일년 이상 매우 뛰어난 성적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탁월한 神學徒였다.

2學年 가을부터인가 그는 전부터 繼續해 온 주님의 가르침을 實踐하던 중, 방학 동안의 고아원과 나환자촌에서 生活하고 난 후 信仰의인 의문으로 나날을 보내게 된다. 이것이 그가 神을 떠나게 되는 最初의 動機이다.

〈어찌하여 선악을 불문하고 인류에게 재난은 닥쳐 오는가〉 〈부유한 자 힘센 자 권세 있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무(無)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세상에서는 전부인가 가난한 자 병든 자 버림 받은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전부였다. 그런데 어찌하여 무(無)인가〉 〈세상은 믿기 위한 미신으로 가득하다. 어찌면 종교야말로 그 같은 미신의 가장 기교로운 형태가 아닐는지〉<sup>19)</sup>

이러한 의문이 작품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反基督教적 論理의 核心이다. 그리고 그가 써 놓은 〈아하스 페르츠의 일대기〉에서도 야훼에 대한 根本的이고 現世的인

19) 李文烈, 《사람의 아들》, 민음사, 1987, P 44

물음은 繼續된다. 아하스 페르츠 역시 어린 時節 테도스와 변두리 빈민가의 노동자들의 작업장, 지하 감옥, 문둥이 계곡 등을 구경하고, 아삽의 아내 사라와의 不倫과 그녀의 죽음을 통해 육신을 가진 人間의 不幸과 苦痛에 회의한다.

그러나 이런 회의에 아랑곳 하지 않고 神은 沈默한다. 단지 성서 속의 말씀으로 人間을 구속할 뿐이다. 민요집은 결국 神을 떠나기로 결심한다. 그리하여 社會 속의 고통과 불행에 뛰어들어 가난한 자·고통받는 자들에 자선하고 새로운 神-현실과 맞닿아 있는 神-을 찾아 나선다. 그의 欲望은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는 유대의 傳說 속의 아하스 페르츠라는 反基督教的人物을 성서에서의 여러 部分에 登場시켜 예수와 對立하게 하고, 야훼를 否定하게 한다. 그리고 그 아하스 페르츠를 模倣하면서 現實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보면, 민요집이 갈망하는 神은 아하스 페르츠가 찾는 새로운 神이 된다. <쿠아란타리아 書>가 바로 요섭과 아하스 페르츠 兩者를 連結하는 窮極的 欲望의 對象이 되는 셈이다.

그 內容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 위대한 지혜는 광야에서 사람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야훼의 善과 나의 智慧는 저 태초의 존재를 없고 있던 씨(經)와 날(緯)이었다.

너희 본성의 양면 중에서 나로부터 비롯된 반쪽을 그의 말이 단죄했다.

사람의 아들을 통해 대지와 인간을 독선에서 구하려 한다.

- 위대한 지혜는 사람의 아들에게 다시 이렇게 말했다-

나의 否定은 더 큰 긍정을 위해 있었으며, 우리 兩性의 대립은 궁극적으로는 거룩한 조화에 이르기 위한 과정일 뿐이다.

우리는 땅 위에서 너희를 세웠으니 구원도 땅 위에서 구하라.<sup>20)</sup>

그러나, 아하스 페르츠가 故郷에 돌아와 위대한 영을 만난 후에 예수와의 7차례의 만남과 언쟁을 벌이고 결국에는 예수 또는 야훼에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민요집 역시 자신의 神에 회의하고 돌아선다. 자신이 애써 찾고 고행을 통해 만

20) 앞의 책, PP 238~254 참조

들어진 신에 절망하고 마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찾은 神은 추상적인 신일 뿐이고, 전혀 現實에의 적용이 좌절되어 버린 욕망이라는 각성이다. 여기에는 그만한 理由가 있다. 金柱演의 解釋처럼, 위대한 지혜가 만들어 놓은 神은 ‘神性’이 결여된 神이기 때문이다.<sup>21)</sup>

그리고 神性이 缺如된 神을 받들고 그에 따른 現世의 구원을 치열하게 수행하려는 조동팔의 行動 또한 민요섭의 좌절에 큰 원인으로 작용한다. 작품 곳곳에서 민요섭은 조동팔과 멀어지기 위해서 자꾸 피해 다닌다는 인상을 주는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또 말했오. 신학의 탈개인화든 혁명의 신학이든 또는 그 이상 마르크시즘과 손을 잡게 되든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神 안에〉 남아 있어야 했다고. 그리고는 단정했오. 우리는 무슨 거룩한 소명이라도 받은 것처럼 새로운 신을 힘들여 만들었지만 실은 설익은 지식과 애매한 관념으로 가장 조악한 형태의 무신론을 읽었을 뿐이라고 우리가 어김없이 신이라고 믿었던 것은 기껏해야 저 혁명의 세기에 광기처럼 나타났다가 조롱 속에 사라진 이성신(理性神)이거나 저급하고 조잡한 우리의 신격화(神格化)에 지나지 않았다고. 그런 다음 과장된 참회와 더불어 십자가 아래로 돌아가겠다고 했오.<sup>22)</sup>

이 내용이 민요섭이 조동팔에게 말한, 基督教로의 회귀를 결심하게 된 배경이다. 물론 조동팔은 아연했지만, 요섭은 벌써 자신의 정신적 토양이었던 기독교로 돌아선 후였다. 따라서 조동팔이 요섭을 칼로 난자할 때도, 민요섭은 그 神性의 안온함에 미소까지 떨 수 있었던 것이다.

민요섭의 欲望 挫折은 결국, 神性의 회복을 意味하게 되는 것이다.

## 2. 동팔의 경우

〈쿠아란타리아書〉에서의 위대한 지혜는 요섭뿐만 아니라 동팔에 의해서도 창조된 神이다. 요섭의 神 사상에 경도된 동팔은 요섭의 테두리 안에서 世界를 구원

21) 金柱演, 앞의 책, PP 217~218 참조

22) 李文烈, 앞의 책, PP 265~266



하려 애쓴다. 그의 欲望은 일면 달성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선악의 관념이나 가치판단에 관여하지 않는 신, 먼저 있는 존재를 뒤에 온 말씀으로 속박하지 않는 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시인하는 신……우리의 지혜와 이성을 신뢰하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는 신’ 앞에서 그는 그들에게 용서되는 행동 역시 자신들의 신도 용서한다고 판단한다. 이에 따라 그는 김동욱이란 人物로 둔갑하고 不當하게 많이 가진 자들에게서, 殺人과 強盜의 형식을 빌어, 재물을 뺏고 가난한 자를 구하고자 한다. 그는 行動하는 人物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人生의 意味와 行爲의 正當性을 부여해 주던 민요섭이 基督教로 회귀하자, 그는 흔들린다. 그는 애초에 심각한 회의 없이 요섭의 지식에만 이끌렸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내 정당성의 근거였을 뿐만 아니라 앞서가는 내 행동을 뒤따라와 해설해 줄 논리와 철학이었기 때문이오<sup>23)</sup>……

조동팔에게는 심각한 논리나 哲學이 없었다. 한 때 교회에 나가고 神學大學에 진학할 꿈까지 가졌던 그가, 민요섭이라는 人物이 가져다 준 엄청난 知識의 世界에 놀라고 동경하여 자신의 삶 全部를 내맡겨버릴 때에는 새로움에 대해 充分한 회의와 비판이 뒤따랐어야 했다. 즉 그의 神은 外面으로는 現世的 神다운 모습을 하고 있었지만 內面으로는 社會의 秩序體系와 神性이 결여된 그런 行動만의 神이었던 것이다.

이런 狀況下에서 민요섭을 살해하고 자신의 새로운 神을 지키리라 마음 먹었던 그는, 요섭의 빈 자리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로써 그의 욕망은 挫折되어 버린다.

그러나 그의 좌절이 아무리 보잘 것 없는 것이었을지라도, 그 나름의 의미는 갖고 있다. 그것은 민요섭이 神과 人間을 잇는, 아하스 페르츠와 예수 위대한 靈을 만나게 하는, 그런 매개적 人物이었음과는 달리, 조동팔은 철저히 人間の 立場에

23) 앞의 책, P264

서서 人間性을 대변하는 人物이라는 점이다. 민요집은 기독교로 회귀한다. 그는 神을 알고 神性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동팔은 피상적인 理解와 신성이 결여된 人間이다. 신을 否定하면서 또한 새로운 돌파구를 열려고 하는, 그리하여 또 다른 믿음을 가질 수 밖에 없는 (민요집에 대한 믿음), 그런 人間性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다.

조동팔이 갖는 挫折의 意味는 바로 人間의 限界狀況인 것이다.

이상의 요섭과 동팔의 욕망 좌절과 그 의미로 보아 李東夏가 주장한 '20C 解釋學의 성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작품'<sup>24)</sup>이라는 해석은 자연히 비판되었으리라 본다. 다시 말해서 작품의 중심의미는 신에 대한 현세적 의미 규정을 뛰어 넘는 것이다. 이는 다음 項에서도 설명되는 것이다.

#### IV. 作家와 讀者와의 Communication

한 作品을 中間에 두고 上下 또는 左右에 作家와 讀者가 存在하기 마련이다. 작가가 한 문학작품을 내 났을 경우, 독자에 의해서 그 작품의 存在가 認定된다는 點에서 볼 때, 작가뿐만 아니라 독자 역시도 작품의 의미 구현에 적극 參與한다고 볼 수 있다.

小說의 Communication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커뮤니케이션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으나 자세히 관찰하면 여러 가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우선 암시적 의미를 대체로 중요시한다는 점과 독자의 능동적 참여가 요구된다는 점을 소설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으로 들 수 있을 것이다.<sup>25)</sup>

이 항목에서는 앞의 研究를 통해, 作家가 讀者에게 傳達하려는 意味는 무엇이고 그 전달된 의미를 독자가 어떻게 受容하는가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앞에서 필자는, 額子形式을 띠고 있는 이 작품에서, 바깥이야기와 안이야기의

24) 李東夏, 앞의 책, P14

25) 金天憲, 앞의 책, PP200~211

연결고리는 <쿠아란타리아書>라고 밝힌 바 있다. 그것은 아하스 페르츠의 일대기 속에서 존재해 있던 이 부분이, 민요섭과 조동팔에 의해, 자신들의 敎理로 채택된다는 사실에 착안한 것이다. 이것은 또한, 주인공들이 오랜 고행 끝에 찾아낸 ‘새로운 神’이 되며, 작품의 核心意味를 집약하고 있기도 한 것이다. 여기에서 독자들은 이 새로운 신은 작중인물들이 그 現實에의 작용에 실패하여, 민요섭과 아하스 페르츠가 基督教로 돌아가고, 조동팔이 죽는다는 점으로 미루어, 작가의 메세지는 ‘기독교의 위대한 神性 제시’라고 把握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그것이 아니다.

앞에서 살핀 민요섭과 조동팔이 挫折된 欲望의 意味에서 작가의 메세지를 살펴보자. 민요섭은 神性を 깨닫고 基督教의 十字架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이 소설은 조동팔의 모습을 마지막에 배치시키고 있다. 이 점을 작가의 배려라고 보는 것이다. 동팔은 민요섭의 테두리 안에서만 그 行動이 正當化되던 人物이다. 동팔의 행동이 極端으로 치닫자 요섭과 갈등한다. 결국, 神性は 살아있다고 믿는 요섭과 이에 人間的인 解釋을 자행하고마는 동팔 사이에서, 作家는 동팔이 아주 보편적인 우리 현실의 人物일 수 있다는 점을 말하려 한다.<sup>26)</sup> 이는 예수와 아하스 페르츠 兩者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작가는 민요섭과 조동팔, 예수와 아하스 페르츠를 對立시켜 놓고 讀者들에게 神性和 人性에 對한 選擇을 맡겨 버린 것이다. 그 결과는 당연히 ‘神性和 人性 사이에서 고민할 수 밖에 없는 人間의 限界狀況’을 낳고 말 것이다.

讀者의 立場에서 보면, 작가의 발언은 당연히 作品을 통해서 把握할 수 밖에 없다. 言語라는 Code 속에 숨겨진 暗示的 意味를 읽어내는 것이 독자의 몫이다.

우선, 讀者는 이 作品에서 神에 대한 오래된 물음이 提起된 데 대해 作家와 共

26) 동팔이 사람을 살해하거나 재물을 빼앗는 行爲가 보편적 人物의 행위라는 말이 아니라, 민요섭의 신적 해설(현세성)에 경도될 수 밖에 없고, 그를 믿으며, 그가 사라졌을 때 아노미적 상황에 빠져버리는, 그리하여 자신마저도 죽음을 자초할 수 밖에 없는 점이 인간성을 대변한다는 말이다.

感한다. 그리고 작가가 어떠한 얘기를 들려줄 것인가를, 독자는 세심히 관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작가와의 斷絶된 時間과 作品의 內·外的 構造의 意味를 考慮하여 나름의 보완을 가하게 된다.

이 작품이 1979년 중편의 형태로 처음 나오긴 했지만 人間の 根源과 神의 本質 問題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작가와 독자와의 시간의 단절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작품의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사정은 달라진다. 독자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암시된 의미를 놓쳐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 작품을 그 구조적 배열에 따라 살펴보면, 겉으로 눈에 띄는 것이 민요섭의 회귀이다. 그러나 동팔의 存在도 무시 못할 것 같다. 다시 아하스 페르츠의 행적을 살펴보자. 민요섭은 전설 속의 인물 아하스 페르츠를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끝부분에 가서, ‘아하스 페르츠의 행적은 터무니없이 왜곡되었다’라는 식으로 전설의 결말을 否認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그를 모방한 민요섭을 보자. 민요섭은 신성을 깨닫고 교회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조동팔과 <쿠아란타리아書>를 만들었다.

독자는 여기에서 重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아하스 페르츠의 회귀에 대해 否定的인 反應을 보인 민요섭이 회귀하게 되더라도, 조동팔은 남게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설의 結末이 이 조동팔의 말로 끝맺고 있다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

그러나 나까지 쓰러졌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지금 나를 부르고 있는 것은 민요섭의 피지, 우리의 신에 대한 절망은 아니다. 이 시각 이전이나 이 시각 이후에나 영원히 살아 있을 것은 우리의 神뿐이며, 실령 아무도 느끼지 못하더라도 그 고독한 신성(神聖)은 언제나 당신들의 머리 위에서 빛날 것이오…… 27)

따라서 독자는, 작가가 민요섭뿐만 아니라 조동팔에게도 시선을 두고 있음을 確認하게 된다. 그리고 작품의 암시적 의미는, 민요섭의 神性과 조동팔의 人性 사

27) 이문열, 앞의 책, P268

이에서 갈팡질팡하는 人間의 한계성임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작가와 독자와의 意思疏通은 끝나게 된다.

## V. 結 論

信仰은, 人間이 그 自身の 限界를 認定하고, 그것을 超越하고자, 神에 대해 애써 祈願하는 行爲이다. 결국 그 神의 存在를 問題 삼지 않고, 기원의 結果가 보잘 것 없는 것일지라도 오히려 자신의 不淨함을 닦하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이다.

이 신앙의 대상인 神은 언제나 人間 주위에 머물게 마련이다. 그리고 인간은 그 有限性的의 한 표징으로 神을 否定하게 된다.

〈사람의 아들〉은 바로 그러한 신에 대한 의문과 부정을 전면에서 내세우고 있는 작품이다. 앞서의 연구 작업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 1) 이 작품의 敘事構造는 額子의 바깥이야기와 안이야기가 서로 교차되면서 全体 이야기를 흥미있게 이끌어 가는 구조이다.
- 2) 作中人物의 欲望構造는 민요섭이 아하스 페르츠를 중개자로 하고, 아하스 헤르츠는 고행을 그 과정으로 하며, 조동팔이 민요섭을 중개자로 설정하여 새로운 神-現世的인 神-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 3) 이러한 욕망의 구조는 實存主義와 科學的 思考에 만연된 인간에게 신의 존재와 본질을 묻도록 만드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反映한다.
- 4) 이 作品은 서사구조상, 탐정소설적 형식을 빌어 무거운 얘기를 재미있게 이끌어 가고 있고, 욕망의 구조상, 욕망을 達成시키지 않고 독자에게 의문을 던진다는 데에 그 구조 미학이 內在한다.
- 5) 요섭의 욕망 좌절은, 神性的의 회복을 의미한다.
- 6) 동팔의 욕망 좌절은, 人間의 限界성을 의미한다.
- 7) 작가와 독자와의 의사소통이라는 관점에서 이 작품은 '神性和 人性 사이에서 고민해야만 하는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핵심의미를 서로 잘 주고 받게 된다.

人間은 有限한 存在이다. 그러면서도 무한을 언제나 추구하는 게 人間이다. 무한을 추구한다는 性格은 인간의 物質的·精神的 質을 높여주게 된다. 언제나 인간 界에서 끊임없는 의문을 던져줄지도 모르는 이 무한의 존재인 ‘神’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人間社會의 價値를 고귀하게 만들 것이다.

이문열의 〈사람의 아들〉 연구를 마치면서 필자는, 살아있지 않으면서도 언제나 두렵고 목시적 존재로 남아 있는 ‘神’을 생각해 본다.

끝으로 이 연구는 필자의 獨善의 視角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선학들의 연구를 여러 곳에서 지적하게 되었다. 그러나 필자는 선학들의 연구 성과를 가볍게 보아서가 아니라, ‘神’을 다룬 작품에 대해 나름의 讀法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욕심 뿐이었다. 이에 따라서 독법상 중요한 문제이고李文烈의 文學적 特色인 ‘文体’의 연구와 神의 문제를 다룬 다른 작품들과의 대비 연구를 남은 課題로 삼는 바이다.

#### 〈參考文獻〉

- 李文烈,《사람의 아들》民音社, 1981(중편)
- 李文烈,《사람의 아들》民音社, 1987(장편)
- 李文烈,《사색》살림, 1991
- 金華榮 譯,《소설이란 무엇인가》文學思想社, 1986
- 金天惠,《소설 구조의 이론》,文學과 知性社, 1990
- 金柱演,《文學의 感動과 神性》,《문학을 넘어서》문학과 지성사 1987
- 宋尚一,《不在하는 神과 小說》,《文學과 知性》1979, 겨울
- 김인숙,《이문열의 「사람의 아들」에 대한 연구》,《울산대 연구논문집》제 20권 1호, 울산대 출판부, 1989
- 이남호,《神의 은총과 人間의 正義》,《이문열 論》,三人行, 1991
- 李東夏,《한국소설에 나타난 기독교 비판》,《전농어문연구》제 2집, 서울시립대 국문과, 1989
- 郭光秀,《사랑과 背理—基督教的 悲劇性》,《사람의 아들》,民音社, 1981
- 金治洙,《구조주의와 문학비평》,弘盛社, 1985